행복 찾는 선지식 禪·敎·律 법석

범어사 여섯 선지식 초청 특별 강연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
범어사 선문화관 6월 28일~8월 4일

禪·敎·律 강연으로 다시 행복 찾아
참가비 무료, 현장 선착순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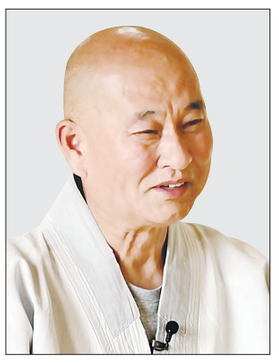

태원 스님


원오 스님


정운 스님


수진 스님


원창 스님


월암 스님 〈사진은 강의 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여섯 명의 선지식과 함께하는 6주간의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특별강연은 여섯 선지식들의 선·교·율 각 분야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잃었던 행복을 찾고자 마련됐다.

6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특별강연은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등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범어사는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대면 법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신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법열(法悅)의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기원한다. 특히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이번 강의를 위해 그동안 읽고 살펴 본 유튜브 불교 강의와 불서의 저자를 정리하고 직접 초청명단을 확정했다.

경선 스님은 "불서와 강의를 통해 읽은 감동을 신도들에게 전달하고 불자로서 바른 신행과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사는 태원 스님(前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원오 스님(원오사 주지), 정운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원창 스님(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월암 스님(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이다.

△태원 스님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정토 사상-정토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태원 스님은 〈정토삼부경 역해〉를 저술했으며 평생 정토신앙을 공부하며 학문적으로 정토교학을 연구했다. 한국 정토불교계의 대표적 학승이라 불리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언어로 집필했다. 태원 스님은 해인사 강원 대교과 및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교토불교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가산불교문화원 감사, 대각회 감사, 보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저서로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왕생론 주 강설〉, 〈정토의 본질과 교학발전〉이 있고 역서로 〈정토삼부경개설〉, 〈중국정토교리사〉, 〈염불-정토에 왕생하는 길〉 등과 이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원오 스님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유식사상-마음의 본체를 이해하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원오 스님은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군종법사로 임관해 용인 호국선봉사 법사를 역임했고, 계룡대 호국사 주지, 대구 도림사 주지, 서울 봉은사 부주지를 역임했으며, 31대 군종감 대령으로 전역했다. 무공훈장 삼일장을 수상했으며 현재 유튜브 원오TV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운 스님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선사상-중국선과 한국선의 양상과 특징'을 주제로 강의한다. 정운 스님은 〈허운-중국 근현대불교의 선지식〉, 〈붓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맨발의 붓다〉, 〈환희-중국사찰기행1〉, 〈떠남-중국사찰기행2〉 등 다수 출간했다. 정운 스님은 1982년 명우 스님을 은사로 서울 성심사에서 출가했다.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년간 미얀마 판디타라마 명상센터와 쉐우민 명상센터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진 스님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엄사상-최고의 경전 대방광불화엄경의 이치를 읽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수진 스님은 대승불교 경전 〈화엄경〉을 풀이한 〈화엄경 소초〉를 한글 완역했다. 〈화엄경 소초〉는 〈화엄경〉의 주석서로 불리며 방대한 양으로 유명하다. 수진 스님은 동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 금산사 화엄학림을 졸업했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했으며 현재 해인정사 주지, 동명대학교 석좌교수, 동명대 세계선센터 선원장이다.

원창 스님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계율-계율의 의미와 지계정신'을 주제로 강의한다. 원창 스님은 해인사 기획국장을 역임하며 〈화두공부 하는 법(성철 스님의)〉저술에 참여했으며,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을 저술했다.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 율원을 졸업했다. 산청 율곡사 주지와 법주사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이다.

△월암 스님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선과 수행-조계종의 근간 간화선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한다. 월암 스님은 〈간화정로〉, 〈돈오선〉, 〈친절한 간화선〉 등을 저술했다.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벽송사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이다.

범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여 년 동안 법회 인원이 제한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고 종식되어 가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멈추었던 삶이 전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사, 미륵대범종각 기공식

"21세기 문화예술로 남을 것"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가 6월 5일 경내 일대에서 '미륵대범종각 기공식'을 봉행했다.

광명사는 미륵대범종각 불사 이후 미륵부처님, 약사여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범종에 주조 봉안한다. 광명사는 기공식을 통해 미륵대범종 소리가 시방세계 널리 전해져 법음을 듣는 사람마다 약사여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고 용화세계, 청정 불국토가 세워지길 서원했다.

행사는 불사현장에서 신중작법 이후 테이프 컷팅 및 시삽을 진행했으며, 지관 전으로 자리를 옮겨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대중들은 고불문에 담긴 불사 원만 성취를 함께 기원했으며, 이재동 신도회장은 경과보고에서 불사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춘광 스님의 봉행사에 이어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과 백종헌 국회의원의 축사 등 내빈들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주지 춘광 스님은 "오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봉행했다. 미륵대범종각 불사는 일체생명과 우주만물의 행복과 해탈을 기원하고 대자대비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사이다. 범종각 건립으로 광명사는 천태일승묘법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청정한 전법도량으로 장엄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질병과 경제난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다. 제불보살님과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정진 수행하여 청정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륵대범종각 불사는 2021년 8월 주지 춘광 스님과 불자들의 발원으로 시작됐으며, 같은 해 9월 7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께 건립 불사 증명을 받았다. 미륵대범종각은 전통 한식 목조 구조로 지상 1층으로 건립되며 규모는 연면적 60.84㎡이다. 우림목재 대목장 신응수 도편수가 불사를 담당하며 전통 목구조 주심포 양식에 육송목재를 활용한다. 전통기와와 전통조립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범종은 원광식 국가문형문화재 주철장이 담당한다. 범종은 3300관에 높이 3.3m, 직경 1.9m, 중량 1만 2375kg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옥천암, 약사여래삼존불 점안법회



황령산 옥천암(주지 대각)이 6월 3일 경내 일대에서 약사여래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옥천암 사부대중은 약사여래불, 일광보살, 월광보살 점안을 통해 무명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다.

행사는 점안의식에 이어 개식을 알리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발원문 및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대각 스님은 법회에서 함께 동참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선물과 공로상을 전달했으며 인사말을 통해 불사의 공덕을 찬탄했다. 이어 부산 문현 2동 소외이웃을 위한 성금 300만 원과 성품을 전달했다.

대각 스님은 "오늘 점안법회가 열리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불자들의 동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불사 공덕으로 옥천암을 찾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한다"고 축원했다.

한편, 행사에는 주지 대각 스님을 비롯해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보광사 도원 스님, 장상목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 백일장 시상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이하 생명나눔실천 부산)가 6월 4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제14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은 지난 5월 28일 중·고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실시했다. 대상은 고등부 산문 하승민(해동고 2학년), 중등부 산문 이휘소(대천중 3학년), 고등부 운문 김문성(해동고 1학년), 중등부 운문 최연미(대천리중 2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생명나눔 부본부장 자인 스님, 총무이사 성문 스님, 이경순 운영이사, 최성은 운영이사, 박명규 금정중학교장, 천용귀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처장 등 내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부본부장 자인 스님은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소중하다. 백일장에 참석한 인연을 계기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가치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란다"며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더욱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신도회 봉사단 자비나눔

라면 및 백미 등 물품전달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병호)봉사단이 6월 8일 울산불교신도회 사무실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자비나눔 물품은 백미 10kg 30포와 라면 30박스 및 10만 원 선물권 25장 등으로, 총 38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물품은 울산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과 울산불교신도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마련했으며, 울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협의회에 전달해 소년소녀가장 3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 회장과 양우석 울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 부회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이병호 신도회장은 "신도회 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보살피고 지속적으로 소년, 소녀가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작은 보탬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불교사암聯, 산불재해현장 격려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가 6월 4일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불재해현장에서 격려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격려품은 200만 원 상당의 간식이며, 전달식에는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각 스님과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 환명 스님, 성정 스님, 지공 스님, 지설혜 스님 외 회원 스님들과 박일호 밀양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진각 스님은 "지역 화재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불교사암연합회에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심정으로 간식을 전달하게 됐다"며 "공무원과 봉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홍법사, 제32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창건주 하도명화 동상 제막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6월 6일 경내 일대에서 '제32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했다. 홍법사는 매년 故 하도명화 창건주의 호국 염원을 담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는 하도명화 창건주의 보살행과 포교 정신을 기리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상 제막식을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는 주지 심산 스님을 비롯해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과 양재생 신도회장, 이영경 동국대학교와이즈캠퍼스 총장, 린 천푸 대만총영사, 콜비쉐우드 주한 미해군 사령부 참모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님은 허공은 어떤 것도 다 수용하고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라고 하셨다"며 "보살님이 살아계신다면 100세를 맞는다. 그분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어 불법홍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며 김상수 아람바 대표가 30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홍법사에 기부해 감사패를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N불교TV 부산합창단, 정기연주회



BTN불교TV 부산합창단(단장 이옥숙)이 6월 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연주회는 '연꽃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합창단은 삼경에 피는 꽃, 가족이라는 이름, 부처님 진리길 등 다채로운 불교음악을 선사했다. 아울러 특별공연에는 BTN불교TV 남성중창단과 풍물밴드 '이상'이 출연해 무대 공연을 펼쳤다.

김수현 BTN불교TV 부산지사장은 "거문고의 줄이 느슨하지도 꽉 조이지도 않아야 제소리가 나듯 단원 전체의 절제 속에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소리에서 인내와 화합 그리고 수행을 본다"며 "이렇게 아름다운 불음으로 세상을 맑히는 BTN불교TV 부산합창단의 지난 걸음들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